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려워... 초초저금리 대출 검토”

권철승 중기부 장관 간담회

손실보상 위한 액수 계량 불가능
정부 소상공인법 개정에 무게추
임대로 부담 낮추는 방안도 강구
비대면 서비스마우처 실패 인정

소상공인정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권철승 장관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고 다시 한번 뜻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중기부가 적극 추진했던 비대면 서비스 마우처 사업에 대해선 “기획이 잘못됐다”면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탄소중립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자상한 기업 2.0’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철승 장관은 취임후 처음으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고 의견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은 다양하지만 정부측 입장은 정리가 됐다”면서 “제일 관심사항이 ‘소급적용’인데 소급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을 인정한다고 하면 향후 어느 정도로 손실을 보상해 줘야할지 (액수)를 계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선 지금의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다만 (기존)소상공인 관련법, 감염법, 특별법 등 여러 형태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상공인들

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지는 (정부내) 공감대”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손실보상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상공인들의 임대로 부담을 낮추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무이자자를 포함해 초초저금리 대출방안을 검토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로 등

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것”이라며 “낮은 이자와 무이자 지원 등에 대한 이견이 많지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강원도 산불시 0.1%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해준 사례가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최근 사업자들의 부정행위가 곳곳에서 발각된 비대면 서비스 마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건 기획이 잘못됐다”면서 “부정적인 사례들을 중기부에서 조사했고, (부정 수급 등)내용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선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우처 금액도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

중기부는 지난달 관련 마우처 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서비스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달 중순에 ‘자상한 기업 2.0’ 1호 기업도 탄생한다.

권 장관은 “환경 등의 문제는 대기업들도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생존 차원에서 중요하다. ESG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자상한 기업을 선정해 상생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중기부로의 이관 문제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코트라(KOTRA)가 대표적이다.

권 장관은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기엔 관련된 사람들도 많고, 검토할 것도 많다”면서 “산업부(등)와 잘 협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지난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12시 현재 신청은 202만3000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202만1000곳에 3조558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장관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현장 점검을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엔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으로 달려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특고 업종 60% “추가 세금감면 절실”

〈특별고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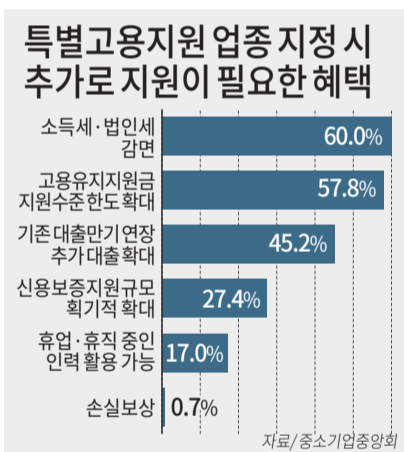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135개사 설문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 원해
10곳 중 4곳 “지원혜택 못 받아”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추가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의 중소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제2차 고용정책 심의회 심의 결과 지정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들의 지원 혜택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업종으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휴업·휴직수당의 67→90%)

및 일일 한도(6만6000원→7만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장애인의 의무고용부담금 완화 ▲고용보험 지원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등이다.

조사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60%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추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일일 한도 상향’(57.8%), ‘기존 대출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개선방향에 대해선 ‘서류 간소화 및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유급휴업 수급기간의 연장’, ‘고용보험 연체시에도 일정기간 지원혜택 유지’ 등을 꼽았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전국 택배기사 건강 챙긴다

건강검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건강검진 연계 건강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전문의료진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된 건강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은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택배기사 건강증진을 위한 MOU’ 체결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위탁을 받아 직종별로 유해요인 파악, 전문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이행의 일환이다. 앞으로 모든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매년 뇌심혈관계 항목이 추가된 건강검진은 물론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서비스를 연간 3회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검진과 건강상담서비스는 택배



CJ대한통운택배기사들이 전문의료진으로부터 건강상담서비스를 받고 있다. /CJ대한통운

기사의 편의성을 고려해 전문의료진이 택배기사가 일하는 서브터미널에 직접 방문한다. 특히 건강상담서비스의 경우 건강검진 기록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건강상담부터 근무환경개선 상담까지 건강과 관련된 포괄적인 전문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건강상담서비스 항목 중에는 ▲건강진단 이후 사후관리 및 직업병 예방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상담 ▲직업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등 택배기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김승호 기자

동양, SKT와 ‘스마트팩토리 사업’ 시동

SKT ‘클라우드 설비 관리 솔루션’
업계 최초 산업용 송풍기에 적용

유진그룹 계열인 동양이 업계 최초로 산업용 송풍기에 스마트팩토리를 접목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양은 1일 서울 여의도 동양 본사에서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스마트팩토리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양의 산업용 송풍기 제조기술에 SKT의 클라우드 기반 설비관리 솔루션을 결합한

차별화된 스마트팩토리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이며 기존 사업영역을 한 단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보이게 될 산업용 송풍기 스마트팩토리 서비스는 송풍기의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다.

SKT에서 자체 개발한 스마트공장 AI 월 구독형 서비스인 ‘메타트론 그랜드뷰(Metatron Grandview)’와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의 이상치 및 고장 전조의 알람 ▲설비 유지보수 기록 및

DB화 ▲AI 분석 모델링 등을 제공받는 다.

이에 앞서 양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플랜트와 산업용 송풍기를 생산하는 동양예산공장의 제품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동양은 기존 산업용 송풍기 사업에 스마트팩토리 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제품의 고급화와 다양한 라인업 구축으로 시장 경쟁력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플랜트 설비, 레미콘 컨베이어 벨트, 환경 설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정책자금 평가에 AI 비대면모형 도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평가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비대면 평가모형을 전면 도입한다.

중진공은 비대면 평가모형 ‘ZERO-TACT’를 본격 도입하고 정책금융 지원 프로세스 디지털화 실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ZERO-TACT’는 미래성장성 중심의 비대면 평가모형으로 중진공은 정책자금 평가기업 5만549개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한 기술사업성 평가모형과 내부 17만개, 외부 540만개 기업의 데이터

를 활용한 AI평가모형을 결합해 디지털 기반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스템을 구현해냈다.

김학도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G밸리에 있는 중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ZERO-TACT를 활용한 비대면 평가를 직접 시연했다.

김 이사장은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대상 정책자금 상담부터 기업진단, 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 중심으로 개편 중”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